

2023년 10월 1일(주일) 제1650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2023 사명자대회

"성령이여 우리를 위로하소서!"

10.8(주)-11.26(주) 50일간

특별새벽기도회:11.20(월)-11.25(토) 새벽 5:00, 강사:손달익 위임목사

2023 사명자대회 공동기도문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1. 서울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개인을 위하여]

2. 하나님 앞에(Coram Deo)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신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소서.

[가정과 일터를 위하여]

3.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되게 하시고,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4.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 거목으로 성장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는 위대한 세대가 되게 하소서.

[선교지를 위하여]

5. 서울교회와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선교지 교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함께 하시고,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6. 이 땅의 정치와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게 하시고, 북한의 핵위협과 격변하는 국제정세를 극복하여 복음화된 통일조국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성취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울교회 열린프로그램 가을학기 모집공고

1. 학기운영:클래스당 3개월 단위 (겨울, 봄, 여름, 가을), 10주 코스
2. 23년도 가을학기: 10. 7일(토)-12.10 (주일), 10주
3. 운영비:각 학기당 90,000원 (10시간 기준)
4. 문의 및 신청:남재은 집사 (010-9189-8019)
5. 구글신청서 양식 <https://forms.gle/8SRFfuTYF8ucwEEw5>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악기	클래식기타 합주	주일	12:40-	10주	505	장윤식 집사
	통기타	주일	12:40-	10주	605	박민서 집사
		토	11:00-	10주	505	김상윤 선생
	베이스기타	토	12:20-	10주	505	
	드럼	토	11:00-	10주	601	한도연 선생
	색소폰	토	14:00-	10회	B101	정인주 단장
연기	핸드벨	주일	14:30-	10주	402	송재월 권사
	찾아가는 힐링연기	토	19:00-(120분)	5주	702	박재현 배우
미술	비단부채에 피는 모란 (비단채색화)	주일	14:00-(100분)	5주	704	유은경 집사

10월 서울가족 토요일새벽기도회

10월 서울가족 토요일새벽기도회가 10월 첫 번째 토요일인 10월 7일(토) 오전 6시에 열립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를 위한 기도제목을 가지고 온 가족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함으로 위로받고 응답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동절기 목사복 착용

오늘, 10월 1일(주)부터 주일예배에 동절기 가까운 입으며 교역자들은 동절기 목사복을 착용합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욱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감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예준 김종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고향 가는 사람들

(히 11:13-16)



손달익 위임목사

성경에는 고향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수 있습니다. 롯기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흉년 때에 고향을 떠나 모압에 정착했지만 남편과 두 아들 모두와 사별한 후 고향 베들레헴으로 복귀했습니다. 객지에서서의 고통을 안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고향이었지만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의 돌봄으로 가정을 재건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동역한 바나바는 후덕했고 헌신적이었으며 탁월한 지도력으로 초기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교회의 내분 상황에서 바울과

불화를 겪던 그가 선택한 마지막 사역지는 그의 고향 구브로, 사이프러스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떠난 고향을 영원히 돌아가지 못한 채 세상에서의 고단한 나그네 삶을 마친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적지 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0년을 가나안 여러 곳을 배회하며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나그네 생활을 죽음으로 마쳐야 했습니다.

1. 믿음으로 시작한 나그네 인생

히브리서 11장에는 일생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신앙의 선진들,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8절). 하나님께서는 목적지를 미리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시하는 곳으로 갈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몰랐고, 그가 가야할 곳의 상황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이 첫 출발 때부터 오직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여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는 갈대상자에 어린 모세를 담고 나일 강에 흘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자식의 앞날을 부모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맡겨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검증되고 확인된 길로만 가려합니다. 그래야 안전이 보장되고 결과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미지의 내일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인생들을 축복하시고 귀중한 인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출발한 나그네 인생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와 가족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히 6:14) 믿음으로 출발하여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붙드십니다.

2.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삶

믿음으로 출발한 인생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 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그의 가나안 생활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고향과는 달리 가나안 땅은 거친 황무지가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목축과 농사가 가능한 지역은 이미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정착과 생존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이미 정착했던 다른 부족들의 견

제와 텃세 또한 매우 심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곳을 전전하며 이주를 계속하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창 12:9) 남방은 네게브로 불리는 지역으로 인간 생존 한계선 이하의 지역입니다. 이런 곳으로 내려간 것은 그에 대한 원주민의 견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온 고향이 그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믿음의 결단 때문이었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모든 삶은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요 떠나온 고향이 참 본향이 아니라 돌아갈 하늘의 본향이 참 고향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하고 땅에서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지 못하면 마치 내 믿음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으로 보상하시기도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의 구원은 천국을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누릴 가장 큰 기쁨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는 핍박과 고통으로만 가득한 삶을 살

고 환난의 세월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서 박해와 능욕뿐인 삶을 살았더라도 믿음을 지켜 산 것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마 5:11-12)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험하고 험악한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온 고향으로 결코 돌아갈 수도 없었고 방문도 해보지 못했지만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나그네 길을 가면서도 아브라

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듯 우리도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3.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16절)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들의 대표로 본문은 아브라함을 제시합니다. 땅의 것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이 땅의 힘겨운 나그네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그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그의 자랑이 되어주기를 소원했고, 그 자신은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의 마지막에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동안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달랠 수 없는 슬픔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통해 성도의 삶이 얼마나 고결하며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더 소중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

우리는 모두 고향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순간이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인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미지의 내일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인생들을
축복하시고 귀중한 인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노제현 장로
(2023 사명자 대회
본부장)

저희 부부가 2006년 1월에 서울교회에 등록하고 그해 가을에 처음 맞는 '사명자 대회'는 조금은 낯설었습니다.

'사명자란 목사나 선교사로 부름 받은 이들에게나 어울리는 명칭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회 설립 당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세우자는 비전을 갖고 온 교인이 7주간의 특별 기도를 드리며 헌신을 다짐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

서울교회 성도라면 모두 사명자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성령이여 우리를 위로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월 8일(주일)부터 11월 26일(주일)까지 50일간 사명자대회를 가집니다.

사명자대회는 기도하고 말씀듣고 전도하자는 취지로 24시간 끊임없이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올해도 24시간 기도하나 기도 신청서에는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만 표기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 시간은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능한 시간에 자율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빠짐없이 동참하여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자의 진정한 주인공은 성도 여러분입니다



김광태 장로
(2023 사랑의 바자
본부장)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2023년 바자'가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9일(주일) 첫 바자 모임을 통해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바자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전체적인 바자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첫째:전 교인 모두가 참석하는 바자를 할 것.
둘째:교구 경쟁이 아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는 바자를 할 것.

셋째:바자 수익 보다는 좋은 물품과 착한 가격으로 이웃과 함께 하는 바자를 할 것.

이러한 밑그림 아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에 실시했던 "미리바자"와 그리고 "사랑의 온도계" 및 "희망판매장터"를 새로이 도입하여 바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설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오정수 장로님께서 시설은 걱정하지 말고 다른 일에 전념하라고 말씀하셔서 더욱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었으며 개회예배 시 말씀드렸듯이 호텔급(분위기)바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실시했던 부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

도 예측이 가능하였으나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판매장터는 기증품의 여부에 따라 실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혀 예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실적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실적을 희망판매장터에서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호수에 여유 있게 떠있는 오리들의 여유 있는 자태 뒤에는 물밑에서 쉴새 없이 움직이는 오리발의 존재가 있음과 같이 이러한 놀라운 실적은 어떤 한 권사님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기증과 더불어 많은 성도님들의 협조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또 어머니님 같은 은퇴권사님께서 시집오실 때 시어머니께서 주신 보석을 기꺼이 희망판매장터에 내놓으시는 것을 보면서 반드시 정성이 담긴 바자를 펼칠 것을 마음 속에 다짐하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바자를 준비하였습니다.

바자 시작 전, 8층 먹거리가 적어 걱정을 하였으나 바자 당일에는 많은 권사님들을 주축으로 한 다양한 먹거리가 풍성하였고, 매 바자 때마다 고민을 해야 했던 식당 설거지 문제는 교구 장로님들과 부교구장 및 남자 간사님들께서 흔쾌히 섬겨 주셔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희망판매장터는 바자의 또 하나의 희망이 되었고, 사랑의 온도계의 온도는 많은 성도님들의 뜨거운 참여로 목표인 100도를 넘어선 120까지 올라갔습니다. 물품

판매는 한 교구도 빠짐없이 한 품목 이상의 물품판매에 나섰으며 호산나대학도 동참하여 1층 실내와 주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명실상부 서울교회 바자의 명물이라 할 수 있는 침구류 판매는 배개 피 한 장 남음 없이 모두가 판매 되었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웃고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시며 삼삼오오 바자에 찾아오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각 교구에서 자원한 229명의 봉사자들로 인하여 가능했으며 이분들이야말로 이번 바자의 진정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로 72,840,324원 열매를 맺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바자의 선두에 서서 많은 것을 지도해 주신 조원영 목사님과 물품이 올때마다 두 팔 걷어 올리고 나르는데 도와주신 목사님들,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행동해 준 바자위원님들 그리고 기도와 격려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이번 바자를 단지 물품을 팔고 수익을 내는 바자가 아닌 사랑과 희망을 주고받는 이웃과 함께하고자 했던 바자의 소망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롬경로대학 교사 모집

내년 2024년 살롬경로대학에서 봉사할 니카 등입니다.
교사를 찾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 분야는 오카리나, 우쿨렐레, 하모 다.

식사 제공
- 교회 제공

70인전도대 9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 (1사-2사)	수요일	전도회 (1사-2사)	토요일	선교회 (1사-2사)
				9/2	빌립 안드레 베드로
9/3	자원자	9/6	도르가 루디아 뵈뵈	9/9	바울 엘리야
9/10	자원자 마리아	9/13	한나	9/16	모세
9/17	자원자	9/20	에스터	9/23	바자
9/24	자원자	9/27	리브가		추석 연휴



2023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11(토) 일반부 본선
11.12(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9장-16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2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0월2일	월	마 16-18	
10월3일	화	마 19-21	
10월4일	수	마 22-23	
10월5일	목	마 24-25	
10월6일	금	마 26	
10월7일	토	마 27-28	
10월8일	주일	막 1-3	

이름: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10월2일	월	시 137-150	
10월3일	화	잠 1-6	
10월4일	수	잠 7-12	
10월5일	목	잠 13-18	
10월6일	금	잠 19-24	
10월7일	토	잠 25-31	
10월8일	주일	전 1-12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시월의 첫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 경외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진실한 성도 되게 하소서.
2.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서울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회개와 갱신,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3.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고난과 눈물이 있는 곳에 회복과 위로를 내려 주시고, 분열된 대한민국에는 복음화된 통일 조국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 전도사
박미라 최종국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